농림부

한-미 FTA관련 축산부문 협의회 개최

농림부는 한-미 FTA에 대비, 축산 부문의 협상방안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우·양돈·양계·계육협회 등 주요 축산 생산자단체들과 지난 5월 25일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농림부는 축산품목의 경우 육우, 고기류, 실용설육, 치즈, 혼합분유, 탈지·전지분유, 버터, 연유, 냉동 돼지고기, 소시지, 냉동 닭고기, 난황 등 444개중 65개를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해 국내외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향후 국내 대책으로 미국과 경쟁하는 축산대책 수립이라는 비전아래 한우는 브랜드 경영체 중심의 품질 고급화, 사양관리 기술제고를, 돼지·닭은 축사시설 규모화·현대화, 브랜드 육성, 가축질병 근절 등을 계획하고 있다.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농업농촌종합대책 재점검 및 119조 투·융자계획 조정과 연계해 사업별 투융자계획 조정 및 신규사업 발굴을 지속 추진하고 FTA관련 재원과 축발기금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FTA관련 재원은 생산부문 현대화·규모화 등에 활용하고 축발기금은 생산이후의 유통구조 현대화, 위생수준 향상 및 국내산 축산물 소비촉진분야에 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아울러 정책자금 융자지원 방식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외에 농지규제완화 및 도축장 구조조정 촉진 등 제도정비와 가축급여 조사료 생산용 필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확대 및 가축위탁사육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검토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류바람 타고 삼계탕 수출물량 증가

한류 바람 등을 타고 삼계탕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농림부는 올해 1~4월 삼계탕 수출이 271톤, 114만2천 달러로 물량으로는 작년 동기보다 30.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나라별로는 일본 186톤, 대만 56톤, 홍콩 24톤 등이며 대만의 경우 작년 동기의 2.7배가 증가한 것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대만 등 삼계탕 수출의 증가에는 한류 바람이 적지 않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며 "삼계탕이 농식품 수출 효자품목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리고기는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힘입어 올해 1~4월 일본 등에 대한 수출물량이 126톤으로 작년 동기의 63배로 증가했다.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철저 당부

농림부는 금년 여름철 장마가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 빠르고, 다소 많은 비와 국지성 호우 등이 예상됨에 따라 지난 5월 30일 농업재해대책 관계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여 사전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농림부는 이날 회의에서 '2006년도 여름철 농업재해종합대책'을 시달하고, 장마가 시작되기 전인 6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또한, 농업관련 기관과 지자체 및 농업인에게 여름철 재해에 사전·사후대비를 철저히 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HACCP인증 사료공장수 확대

대표적 동물먹이인 배합사료가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을 통해 식품만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생산된다.

국내 배합사료공장 91개 중 43개가 HACCP 적용공장으로 지정되어 중금속 및 곰팡이독소, 동물용의약품, 농약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료를 생산하여 40만 양축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배합사료공장에 대한 HACCP 적용은 2005년 1월부터 시작했으며, 현재 43개소인 HACCP인증 공장수를 올해 말까지 50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미인증 공장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등 정책자금 지원시 인증업체를 우선 지원하는 한편, 축산물 브랜드경영체 평가시 HACCP인증 업체가 생산한 사료를 사용하는 브랜드 경영체에 대하여는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2005년 중 인증받은 35개 공장에 대해서는 금년 5월부터 순차적으로 HACCP 이행실태 등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는 인증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부는 앞으로도 이와 같이 HACCP 적용인증 배합사료공장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중금속·곰팡이독소(11종), 농약(27종), 항생제(25종) 등이 함유되지 않은 사료를 생산하여 가축에게 급여토록 해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성을 대폭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축산현안 합동토론회 개최

농림부 축산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등 축산분야의 정책·기술·연구 및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소속직원 200여 명은 6월 1~2일 양일간에 걸쳐 경기도 안성에 있는 농협연수원에 모여 축산현안 합동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참가자를 10개 분임으로 혼합 편성, 주요 축산현안에 관한 토론을 실시함으로써 해결방안 모색과 함께 상호 공감대를 넓힐 예정이며,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방안, 축산물 브랜드 발전방안, 돼지소모성질환 방역대책, 축산농가 방역 및 안전성 확보대책, 소비자 지향 축산물 안전관리 방안, 축산부문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육성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또한 외부전문가 특강을 통해 국내 축산업의

현실과 미래, 미국 등 외국의 농업정책 등을 살펴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사이버 식품산업 상담센터 개소

농림부는 식품제조 업체에서 궁금해 하는 식품산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이버 식품산업 상담센터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상담센터는 On/Off-Line을 연계하여 식품업체가 언제 어디에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유비쿼터스를 실현해 이용자의 편리성을 도모했으며, 식품안전 및 위생에 대한 지식 · 정보뿐만 아니라 기술에서 마케팅, 제품개발에서 생산까지 식품산업에 관련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식품산업 상담을 받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홈페이지(http://foodcenter.or.kr)에 들어간 다음 사이버상담센터의 사이버상담을 클릭한 후 질문을 올리면 신속하게 답변해 준다.

인터넷 활용이 미흡한 이용자는 전화(02-3667-5625)를 하면 분야별 전문가를 연결하여 답변해 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전화 또는 인터넷 상담예약을 이용하여 상담 일시를 예약한 후에 약속한 날짜에 방문하면 된다.

'농가부채경감대책' 6월 말까지 신청

농림부는 2005. 12. 29일 개정된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농가부채경감대책의 신청기한이 오는 6월 30일로 다가옴에 따라 농업인들이 신청시기를 놓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채경감대책은 지난 2001년도 지원된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5.9조)을 2006년 중 상환해야 하나 DDA협상, FTA 확산 등에 대응하여 농업인들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3년 내지 5년간 분할상환토록 하는 조치이다.

이에 따라 1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연리 3%, 5년 분할상환토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리 5%, 3년 분할상환토록 했다.

분할상환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농 · 축 · 인삼협 · 산림조합에 비치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해야 한다.

금번 농가부채 경감지원으로 쌀 협상, FTA 확산 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부채 상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2006 농가부채경감대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 참조.

알제리와 농업협력 양해각서 체결

농림부는 지난 5월 2일 알제리에서 개최된 제2차 한-알제리 경제공동위에 참가하고 이 자리에서 알제리 농업농촌개발부와 농업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이 양해각서는 지난 3월 대통령의 알제리 순방 후속조치로 추진한 것으로 농업 정책 정보교환 · 공동연구 · 전문가 교류 등 협력분야를 설정하고, 농업협력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앞으로 양국간 농

업협력의 기본 틀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한편, 농림부는 지난 5월 23~24일 알제리 민관합동조사단의 일원으로 농업농촌개발부와 농업회의소 등을 방문하여 알제리측 농업발전 계획 및 우리측 참여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재 알제리 정부에서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촌개발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우리의 농업 · 농촌 발전경험을 전수해 나가면서 향후 아프리카 대륙에 농업관련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이 기대된다.

이 밖에도 농림부는 올해 프랑스,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과 농업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협의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우리 농업을 세계에 알리는 한편, 농업인뿐 아니라 농업관련 기업의 해외진출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타결

쌀 · 닭고기 · 쇠고기 등 45개 품목은 개방대상 제외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FTA) 상품분야 협상이 1년3개월만에 타결됐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5월 1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한 · 아세안 통상장관회의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태국을 제외한 9개 아세안 회원국 통상장관들이 상품무역협정의 모든 문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상품무역협정이 FTA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사실상 15개 국가와 FTA를 체결한 셈이다.

이번 상품무역협정 타결로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은 원칙적으로 2010년까지 각각 수입의 90%에 해당하는 품목(수입액과 품목수 기준)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2016년까지 나머지 7%에 대한 관세를 0~5% 수준으로 내리게 된다. 나머지 3%에 대해서는 해당품목에 대한 각국의 민감성을 고려해 현행관세 유지, 장기간 관세인하, 최소수입물량(TRQ) 설정 등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10년내에 97%에 해당하는 우리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가 자유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쌀을 비롯한 대부분의 민감 농수산물을 초민감품목 3%에 포함시켰다. 우리나라가 양허제외 품목으로 인정받은 것은 쌀, 닭고기, 활어 및 냉동 어류, 마늘, 양파, 고추, 대부분의 과일 등 45개 품목이다. 민감정도가 높은 다른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도 현행 관세의 20% 수준만 감축키로 합의, 국내 농수축산 분야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상품무역협정 타결로 상당수의 자동차 및 철강제품을 비롯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상품에 대해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은 중국,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아세안 수출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이번 FTA는 우리나라의 5대 수출시장과 처음으로 체결한 FTA"라며 "중장기적으로 대 아세안 수출이 약 100억달러 늘어나고 무역흑자도 60억달러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아세안 FTA 협상은 상품무역협정 외에 올해 초부터 협상이 시작된 서비스 및 투자협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협정은 오는 12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이전 타결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내 최초로 '수의전자현미경 도감' 발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국내 최초로 주요한 동물전염성 병원체들에 대한 '수의 전자현미경 도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도감은 가축질병진단 부서인 병리과(과장 이오수) 주관으로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한 기술을 기

반으로 1993년부터 2005년까지 수의과학연구개발사업과 각종 동물 질병진단을 수행하면서 얻은 각종 재료를 검역원이 보유한 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촬영한 사진을 체계적으로 분류 제작한 것이다.

이 책자에는 최근에 세계적으로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구제역 바이러스를 비롯한 바이러스 38종, 인수공통전염병인 부루세라균 등 세균 17종, 개와 고양이에 주로 기생하는 개 회충 등 기생충 9종 등 총 64종 병원체를 투과전자현미경 및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형태학적인 모습과 질병의 간략한 정의가 함께 해설되어 있다.

특히 이 책자는 눈으로 직접 보기가 어려운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 등의 병원체를 국내 최초로 현실감 있고 생생하게 표현한 자료라는 점과 순수 국내에서 확보한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제작한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수의학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인수공통전염병을 다루는 의학, 생물학 등 여러 분야의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국 아리조나대학과 연구협정 체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고부가가치 첨단수의과학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IT 및 BT기술을 접목한 신속 · 정확한 가축질병 첨단 진단 기술 및 전염병 조기검색시스템의 개발을 위해 지난 5월 16일 미국 아리조나대학교와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연구협정서를 교환했다.

양 기관은 국제공동연구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두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가축전염병 병원체 검출용 바이오칩 개발 등 가축질병 진단에 첨단 바이오칩기술을 응용함으로써 가축질병 진단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며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진단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양 기관은 각자의 보유하고 있는 각종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가축질병진단 및 예방분야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진단기술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하며, 협력기간동안 지속적이고 활발한 정보교환 및 전문기술 인력의 교환방문 및 공동연구 등을 통해 국제공동연구의 성과를 극대화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이번 국제공동연구 협정을 통해 바이오칩 응용 가축질병진단기술력을 확보함으로써 첨단수의과학기술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등 산업적 성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의 수의과학기술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동물검역홍보도우미 체험행사 가져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인천지원(지원장 임경종)은 학생 봉사활동과 연계, 현장체험 기회제공과 국경검역의 중요성 인지를 동시에 만족시켰던 '청소년 동물검역 홍보도우미'에 참여하지 못한 인천공항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지난 5월 29일 동물검역 체험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공항중학교 학생과 학생봉사활동 학부모지도단 80명, 지도교사 3명 등이 참석해 국경검역의 중요성 설명과 함께 인천공항 출국장에서의 홍보도우미 체험, 동물검역계류장 · 검역탐지견센터 현장시찰 등의 국경검역원 현장을 체험했다.

검역원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에서의 동물검역 체험활동을 토대로 하는 '검역기술학교' 운영을 통해 초등학생에서부터 대학생 · 일반에 이르기까지 봉사(동아리)활동으로 확대 · 전개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국경검역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 악성전염병에 대한 발생상황 검토회 개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5월 23일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소해면상뇌증, 웨스트나일열 등 해외 악성전염병에 대한 해외 발생동향 검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검역원 관계자와 생산자 단체 등 30명이 참석해 해외 악성전염병의 주변 발생동향 정보를 공유하고 국내 유입가능성 분석 및 방역대책 추진현황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해외전염병과 박종현 연구관은 최근 중국, 몽골 등 주변국에서 발생되는 바이러스 혈청형이 우리나라에서 2000년 및 2002년에 발생되었던 혈청형과 다른 것을 지목하고 2006년 모든 혈청형의 검출이 가능한 검사법으로 국내 혈청예찰방법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황사(구제역), 발생국산 사료유입(BSE), 애완조류 도입(조류인플루엔자), 매개모기(웨스트나일열) 등 해외전염병 유입가능 위험요소를 보다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본 검토회의를 주재한 이주호 방역부장은 "이번 검토회의는 방역관계자, 생산자 단체 등이 모여서 해외 악성전염병의 국가방역과 예방을 위한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활동 방향에 대해 상호간에 인식을 공유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05년도 축산물 생산비 조사결과 발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정학수)은 지난 5월 9일 '2005년도 축산물 생산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전 축종의 배합사료 가격 인하로 송아지 · 비육우 · 계란 생산비는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우유 · 비육돈 · 육계생산비는 2004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5년도 축산농가의 소득을 보면 산란계를 제외한 모든 축종에서 산지판매가격의 상승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육계소득은 2004년 수당 290원에서 2005년 363원으로 25.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축산물 산지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양축의욕이 높아지면서 출하체중, 번식률, 산유량 등의 가축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어 축산경영이 선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도 농가 산지 판매가격은 2004년과 비교하여 계란을 제외하면 모든 축종에서 높게 형성되고 있으나, 향후 DDA, FTA 등으로 축산물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축산인들의 축종별 생산성 향상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농림부는 밝혔다.

육계 생산비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통계' P 참조.

(사)한국오리협회

신임 전무 김용진씨 영입

(사)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는 전 축협중앙회 출신 김용진씨를 신임 전무로 임명했다.

신임 김용진 전무는 전남대 농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전신인 국립농업경제연구소를 거쳐 축협중앙회 조사부장, 연수원장, 직거래판매분사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사)한국육가공협회

신임 이영진 부회장 선임

(사)한국육가공협회(회장 권태경)는 지난 5월 12일 열린 2006년도 제3차 이사회에서 신임 상근부회장으로 이영진 공학박사를 선임했다.

신임 이영진 부회장은 독일 뮌헨공과대학교 공학박사 출신으로 축산기업조합중앙회 전무, (주)한국냉장 생산처장, (주)거평팜랜드 축산사업담당이사, (사)한국식육처리기능사협회 회장직을 역임했다.

농협중앙회

목우촌분사, 조사연구소 자회사 전환

농협중앙회는 지난 5월 24일 열린 이사회에서 내부조직인 목우촌분사와 조사연구소를 6월 중 별도법인의 자회사로 전환할 것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주)농협목우촌과 (주)농협조사연구소는 6월 중 설립등기를 마치고 7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농협중앙회는 이로써 지난 5월 10일 IT자회사인 (주)농협정보시스템을 설립하는 등 각종 사업의 전문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지난해 12월 중앙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앙회 조직개편'의 1단계 작업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주)농협목우촌은 기존 중앙회 내부 사업조직인 목우촌분사(돈육가공사업, 계육가공사업)가 중앙회에서 분리하여 자회사로 설립된다.

중앙회는 (주)농협목우촌을 국내 최고의 종합식품회사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양돈장·부화장 등 수직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신규 고정투자예산을 포함한 1,124억원의 자본금을 책정했다.

또한 자회사 출범에 맞춰 사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여 경영기반을 조기에 확립하고, 2005년 2,570억원인 매출액을 2010년에는 5,300억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주)농협조사연구소는 기존 중앙회 내부 조사·연구조직인 조사연구소가 중앙회에서 분리하여 자회사로 설립된다.

중앙회는 (주)농협조사연구소가 안정적인 조사·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500억원의 자본금을 책정했으며, 박사급 외부 전문인력을 2008년까지 30명으로 확대하여 국내 최고 수준의 민간연구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IT자회사인 (주)농협정보시스템은 지난 5월 10일 이미 설립등기를 마쳤으며, 최근 서울 대치동 토지공사 건물에 주사무소를 확보하여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목우촌분사,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직원 위해 성금모금

농협중앙회 목우촌분사 직원들이 뺑소니 교통

사고를 당해 사경을 헤매고 있는 동료직원을 위해 성금 및 헌혈증서 기증운동을 펼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목우촌 음성계육공장에 근무하는 김재현 주임은 지난 5월 3일 늦은 퇴근길에 뺑소니 차량에 사고를 당해 신장과 골반 등을 크게 다쳐 5차례에 걸친 대 수술을 받았으나,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 가해자를 찾지 못해 엄청난 병원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이정호 분사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지난 5월 4일부터 성금모금 및 직원들의 헌혈을 통한 헌혈증서 기증운동을 전개했고, 이렇게 모은 성금 및 헌혈증서는 지난 5월 26일 전 직원을 대표하여 목우촌 계육가공사업본부 정찬주 본부장이 김재현 주임이 입원 중인 병원을 방문하여 가족에게 전달했으며, 김재현 주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 가족들을 위로했다.

면세유류 부정사용 신고포상제 6월중 시범 실시

농협은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용과 관련하여 부정사용으로 인해 농업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세유류 부정사용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올해 6월부터 도단위 지역별로 1개 시군을 선정하여 면세유류 부정사용에 대한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면세유류 부정사용 신고포상제'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농협은 매년 농림부, 시도와의 면세유류 합동 점검 외에 농협 자체적으로 연 2회 이상 면세유류 공급 및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농협은 이러한 부정사용 방지 노력을 통해 부정사용을 근절하여 실제로 면세유류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면세유가 원활히 공급되고 면세유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농협관계자는 "지난해 면세유 공급을 통한 농업인 실익이 1조2천4백억원에 달했고, 올해는 지난해와 비슷한 물량이 공급될 경우 1조3천억원 이상의 실익이 농업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사)대한영양사협회

정책 토론회 개최

유기홍 국회의원과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곽동경)는 지난 5월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의 학교영양사, 식품영양 관련학과 교수, 시·도 교육청 학교급식담당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 건강을 위협하는 식생활 환경,

이렇게 개선합시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가정의학과 유선미 교수는 '학생 건강실태 현황 및 학교 건강환경 구축 방안'이라는 주제로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건강 관련 실태를 진단하고, 학교에서의 식생활 및 영양서비스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학교 건강환경 구축을 위해 비만 예방 프로그램 등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충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현태선 교수는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교육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학생들의 아침결식, 편식, 인스턴트 식품 및 패스트푸드 섭취 증가에 따른 비만, 소아성인병 등의 영양관련 문제점들을 언급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교육, 학교 영양상담실 운영, 특별활동반 운영, 영양교육 방법 및 도구, 국내외의 영양교육 프로그램 사례 등을 통해 영양교육의 다양한 모델을 제시했다.

아울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 탄산음료 과다 섭취 실태 및 비만, 골다공증, 치아부식 등의 건강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바람직한 섭취 방안을 제시하는 '날씬이가 되고 싶으세요? 탄산음료를 줄이세요'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했다.

한국축산경영학회

2006 하계 심포지움 개최

한국축산경영학회(회장 이병오)는 오는 6월 14일 건국대학교 새천년기념관에서 하계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움은 전 아르헨티나 대사인 최양부 박사의 'FTA의 사상과 한국의 대응전략'에 대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한-미 FTA가 한국 쇠고기 · 돼지고기 · 닭고기 산업에 미치는 파급영향과 대응전략에 대해 각각 건국대 정경수 교수 · 건국대 김민경 교수 · 농촌경제연구원 정민국 박사의 주제발표 및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전북대 소순열 교수의 '축산경영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이란' 주제발표도 마련되어 있다.

■ 문의 : (02)3299-4113

인사 소식

■ 농림부 (2006년 5월 23일자)

〈서기관 승진〉

• 가축방역과 장기윤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2006년 5월 23일자)

〈서기관 승진〉

• 검역검사과 이기옥

〈전보〉

• 축산물안전과	수의사무관 곽형근
• 검역검사과	수의사무관 유제일
• 수입위험평가과	수의사무관 김효룡
• 축산물규격과	수의사무관 운재호
• 방역과	수의사무관 최춘배
• 동물보호과	수의사무관 우희철
• 축산물안전과	수의주사 김호철
• 방역과	수의주사 장재홍
• 조류질병과	가축위생연구사 김용주